

한살림 선언 의미 찾기 - 선언과 한살림운동의 방향

강연: 김종철

윤형근: 재작년이 한살림 20주년이었고 내년에는 한살림 선언이 나온 지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한살림 선언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한살림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김종철 선생님을 모시고 한살림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선생님에 대해서는 따로 소개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녹색평론 100호가 나왔고 어제 101호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녹색평론 100호를 축하한다는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에 김종철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종철: 저는 오늘 여기가 한살림 선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생각 못했습니다(웃음). 그리고 보니 벌써 한살림 선언이 나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살림 선언문은 명문입니다. 이 선언문은 분명히 역사적인 문헌이고, 실천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웃음) 저는 이 선언문을 좋아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문장입니다. 그러면 요즘 제가 여기저기서 하는 이야기의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촛불 시위와 10대 아이들

어제 녹색평론 101호가 나왔고 여러분들한테는 며칠 뒤에 발송이 될 겁니다. 오전 내내 녹색평론을 읽다가 왔습니다. 이 책이 전부 한살림 선언문을 풀어서 쓴 것이나 다름없지요. 이번에는 촛불 집회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젊은이나 가정주부 등 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네 분이 촛불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촛불집회가 시작하고 나서 녹색평론이 배후세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한 선생님이 녹색평론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교재로 썼다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이번에 촛불시위 집회 처음 제안했던 학생이 바로 그 사람의 제자더라구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불러서 좌담을 시켜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더라구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똑똑해졌나라는 것입니다. 대학교수들은 자기들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사표 내야겠더라고요. 편집자들이 손을 대기는 했지만 내용을 손보진 않았습니다. 내용이 참 신선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있어요. 그에 반해 우리 세대들은 자랄 때 주눅이 들어서 자랐잖아요.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 하나는 이명박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명박을 좋아하다가 이제는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촛불집회에 5월 1일부터 나갔는데, 저녁에 별로 할 일이 없으면 중독된 것처럼 계속 나가가게 되더라고요. 촛불 집회에 나가면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촛불집회에 처음 나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애들이 장난삼아 몇 십 명 정도 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봤는데 첫날에는 대부분 아이들 또는 젊은 어머니들이 나왔었습니다. 아무도 지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중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시 넘어서는 촛불이 통일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구호도 일치되어 나오기 시작하고, 즉흥적으로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동아일보 찌라시라고 하다가 조중동 쓰레기라고 통일이 되고... 애네는 신문을 보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걸 아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10대를 잘 몰라요. 늙으면 아이들을 가까이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10대를 전혀 모릅니다. 그 동안 대학에 오래 있으면서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 보면 대부분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었죠. 그러니 이 아이들이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더 나을 리가 없잖아요. 책을 더 많이 읽었을 거라는 생각도 안 들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교양도 없고 핸드폰 게임이나 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제가 전교조 교사 모임에 나가는데 그때 학생들이 자주 나와요. 남학생들은 없고 여고학생들이 종종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 이야기가 아무 재미가 없을 텐데 끝까지 들어요. 촛불 시위를 하는 첫날에도 물론 남학생들은 없었잖아요. 저는 이게 아주 암시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녹색평론은 20년 전부터 앞으로는 여자들 세상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한살림선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생각했고, 재들이 무슨 사회성

이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심, 성숙한 마음가짐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역사에서 어떤 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아이들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걸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도움을 얻고 싶어서 이 아이들을 부른 거예요. 괜히 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논의를 발전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이야기해봐라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일들은 일단 아주 반가운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10대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녹색평론을 보시면 젊은 주부가 자기가 보기에는 10대에게는 촛불집회가 지금 단계에서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른 것보다 조중동이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니라는 것을 자라나는 아이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자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물론 아이들이 다 이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자랄 때 비하면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어디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도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로는 비율이 얼마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귀중한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저도 좀 냉정해졌는데 지난달 말까지 두 달 동안 거의 흥분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상황이 상당히 절망적이었잖아요. 이 사회가 무슨 희망이 있을까 생각했었죠. 오늘 신문을 보니까 경향신문이 우리나라 자치에 대해 특집을 게재했는데 지방 의회에 한나라당이 압도적이더라구요. 전라도에는 민주당이 압도적이고... 결국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으니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아직도 까마득한데 촛불집회 덕분에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대학생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국가폭력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니까 국가가 공갈과 협박을 해도 황당하기만 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부에서는 배후 세력에 빨갱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10대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10대는 빨갱이라는 명칭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체험이 없는 세대라서 그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오는지 느끼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정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명박이 폭압정치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부영 씨를 만났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명박이 기본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는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고 상황도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고... 그래서 아마 대운하도 재개할 것 같아요. 경향신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결국 대운하 부활한다. 이명박은 대운하 그만둔다는 소리 안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그만둔다는 식으로 말했죠. 결국 자기들이 찬성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결국 부동산밖에 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맞물려 있는데 그게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공안정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공안정국으로 가더라도 아이들은 발랄함 때문에 안 먹힐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야 말이죠. 이제 지금 시대는 우리의 시대가 아닙니다. 거리에 나온 10대 20대들의 시대죠. 비 오는데도 수천 명씩 모이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식량 문제와 글로벌 자본주의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식량 문제입니다. 이번에 북한의 기아 사태가 전 세계적 위기를 경고하는 신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이 쓴 글인데 본래 제목은 ‘북한은 세계의 카나리아’입니다. 북한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식량이 떨어지고 석유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문제, 즉 전 세계가 당할 수 있는 일을 북한이 먼저 겪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는 서양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결론도 친환경 농업으로 신속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지요. 이번에 재정경제부 장관 강만수의 농업관은 굉장히 한심합니다. 그 사람이 첫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업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농산업이라고 하자 그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정부가 그렇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지요.

지난 4월에 UN산하 기구 농업기술 개발에 관한 평가위원회가 몇 년 전에 발족되어 4월에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한국은 이상합니다. 독일의 슈피겔만 봐도 식량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식량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요. 이 보고서가 식량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100개 국가 출신의 400명의 농업전문가들이 몇 년에 걸쳐 연구 조사한 결과를 보니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각 방면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농산업 방식, 즉 녹색혁명의 방식에 따라 이윤을 추구하고 자유무역의 범주 속에서 원거리 수송을 하고 수출을 위한 농사를 짓는 농업의 기업화 노선을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농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많은 자료를 읽어왔지만 정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소농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통 소농들이 유기농으로 하면 생산성이 낮아서 인구를 못 먹여 살린다고 하지만 잘 아는 사람들은 소농이 훨씬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알지요. 다품종 소량생산에 부산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농약을 쓰면 쌀밖에 얻지 못하지만 친환경 농업을 하면 사료작물로 키우고 부산물로 생기는 소산까지 합치면 소농의 생산성이 훨씬 높습니다. 소농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속가능하고 지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의 사막화가 심각하잖아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기업의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만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분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세계 정상들이 식량 문제를 걱정하면서 자유무역 확대, 유전자 조작 식품 생산을 해야 된다는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협업이나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식회사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개인회사보다 주식회사가 부를 사회화하고 책임도 분담하고 권력이 집중화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지요. 창작과비평도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문학과지성. 그 사

람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꽤 생각을 하고 사는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식회사를 하는 것을 보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주식회사는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에는 주식회사 경영자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지 않으면 경영자를 고소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주주들의 배당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이나 환경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윤 극대화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 개인 재산으로 자선사업을 하면 했지, 주식회사를 경영을 하는 동안에는 윤리적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주식회사가 무서운 것입니다. 19세기에 주식회사의 개념이 생기면서 자본주의가 폭주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욕심은 무한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욕심을 내다가도 마음이 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주회사가 되면 그런 반성적 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되는 거죠. 한 살림 주식회사? 아주 무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에게 끊임없이 윤리의식을 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세계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자본과 같은 세력을 꺾지 않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사우스(South)와 글로벌 노스(North)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식민지 제국주의입니다. 어떤 미국 학자는 지금 세계화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제국주의 시기보다 더 심각한 제국주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념들이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글로벌 노스가 있습니다. 미국 안에도 글로벌 사우스가 있습니다. 식코(Sicko)라는 영화를 보셨지요? 미국에 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7천5백만이고, 심각한 병이 걸리면 파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길을 가다가 고목이 쓰러져 자기 식구가 머리를 스치면서 맞아 15바늘을 꿰맸는데 몇 달 뒤에 2만 달러 청구서가 날아오더라고요. 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3만 달러가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과도 못 갑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아직 집에서 벤치로 이빨 빼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사람은 엄연히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FTA를 하면 더 타격을 받겠지요. 문제는 세계화 FTA 이런 용어를 쓰니 사람들이 잘 몰라요. 소고기 같은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FTA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번에 김종훈이라는 사람이 미국 가서 협상단에게 이런 말을 했다죠. 6월 12일에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를 하는 사람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과학으로 설명되느냐 그러니 이제 과학을 따지지 말고 우리 말을 들어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촛불 들고 거리에 나온 한국 사람들처럼 유식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OIE 같은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수백만 명이 알잖아요? 미국의 축산농장은 대로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답니다. 아주 골짜기에

들어가야 나온대요. 미국 사람들도 소 키우는 곳을 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소에 다가가수록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대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들이 그 악취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광택 PD가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취재과정에서 육골분 사료공장을 취재하려고 갔더니 절대로 공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초를 문틈으로 겨우 찍었고 결국 사진을 안 찍겠다고 약속을 하고 육안으로 보겠다고 설득해서 해서 겨우 들어가 봤는데 보호 장구를 차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순간 죽음의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소머리와 뼈가 산처럼 쌓여있더라고요. 자기는 소 내장을 그때 처음 봤는데 그게 널부러져 있는 것을 보고 욕지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잘게 부셔서 기계에 곡물을 섞어서 찌어서 빵아 내리는데, 장구를 차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공장을 보고나니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 슬프고 기가 막힌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카메라에 비치지 않는 더 지독한 장면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소고기와 관련된 강연을 100회 넘게 했습니다. 나도 2번 들어봤는데 OIE는 완전 사기꾼입니다. 미국이 소고기와 관련해서 OIE에서 허가를 받은 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OIE에서 1등급은 광우병의 위험을 무시할만한 나라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스웨덴, 호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광우병 통제국이고 3등급은 미판단 즉 통제가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이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2등급을 받기 이전에 원래 등급이 5단계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원래 4등급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으로는 수출을 할 수 없으니 OIE를 종용한 것이죠. 미국은 사실 바꾼 것이 없습니다. 대신 등급의 기준 자체를 바꿔서 2등급이 된 것이죠. 객관적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OIE는 정부 기관이지 독립된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OIE의 기준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김종훈과 같은 관료들이 국민을 속이는 건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하는 겁니다. 정직한 것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파요. 주부 노릇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특정 위험 부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생산자를 믿지 못하면 이것이 올바른 농산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전에 대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생산자가 물품이 모자라니까 시장에서 사서 내놓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사후에 알았죠. 평소에는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고기를 안 먹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다에도 쇠고기가 들어간다면서요? 결국 안전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한국소는 안전합니까? 영국에서 목축업을 하던 퍼디라는 사람이 광우병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은 광우병의 원인이 살충제라고 말합니다. 동물성 사료보다는 살충제가 더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 동물성 사료를 끊은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광우병이 있잖아요. 물론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나서는 광우병이 급격히 줄었는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 우리나라도 안심을 못하는 겁니다. 소 사료에 농약으로 처리된 사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사료는 전부 미국 사료인데 농약 범벅입니다. 이걸 먹으며 자란 한우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OIE에 신청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자기들은 2등급 받았다 이거죠. 일본은 자기들이 전수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채식하는 사람도 소고기를 피할 길이 없어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결국 우리는 협동조합 체제로 가야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주의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돈 문제가 관련되면 심각해져요. 장일순, 권정생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 2명밖에 없습니다. 3명도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욕은 인간이 끝 수 없는 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개개인에게 각성해라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이제 그런 불구덩이에 안 빠질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녹색평론에서 피터 모린이라는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런 사람은 성인입니다. 무학자에 가난한 사람들과 노숙자들을 먹이고... 우리는 노숙자를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자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런 것을 기대하잖습니까? 피터 모린은 그런 방식에 대해 질책합니다. 피터 모린은 지금 밥을 굶고 있는 사람에게 밥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너의 생각이고 욕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회가 추상적인 덩어리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테두리 속에서 조금 더 쉽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창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피터 모린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이며 악자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윤리적인 행동을 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틀을 벗어나 협동조합의 틀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윤추구라는 것이 맛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마약입니다. 백낙청 선생은 적당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적당한 이윤추구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당히 이윤추구를 합니까? 인간에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녹색평론? 저도 밤낮으로 책을 팔려고 고민합니다. 지금 녹색평론에 고정 독자가 5천 명 정도 되는데 줄어들면 다시 독자를 늘려야지요. 그래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거지요. 지금처럼 공동체가 해체된 상황에서는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중장기적으로 할 일에 관한 논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국의 시민단체가 많은데 잘 안 되는 것은 급한 불을 끄자는 식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돈을 받는다든지 쉽게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한살림

도 제가 보기에는 불안합니다. 식품 주식회사가 지금 한살림이 하고 있는 일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덤벼들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살림이 덩치가 커지면 본래의 정신이 사라집니다. 덩치 커지면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살림에 상근자가 200명이 넘는다면서요? 저도 학교에 있어봤지만 50명 넘어가면 회의가 안 됩니다. 50명 넘어가면 그냥 지시를 받는 거죠. 협동조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주식회사와의 경쟁이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이윤을 추구하려면 차라리 주식회사로 가는 것이 솔직하지요. 경쟁만 해서는 주식회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조합원을 교육하고 자기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세상을 살린다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이고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아야 합니다. 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되풀이 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서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한살림도 조합원들 계몽 활동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조만간 끝장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가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의 시작이라는 말을 하는데 석유문명의 종말의 시작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없어지고 있잖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원자력 발전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여름에 폭염이 계속 될 것인데 이러면 에어컨 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이란 말이지요. 아마 원자력 사고라는 더 악화된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몰라요. 결국 자동차를 버리지 못하니까요. 지금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숲과 농토를 지켜야 하는데 난데없이 에탄올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요. 미국이 매년 에탄올을 몇 %이상으로 자동차 연료로 쓴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농경지는 점점 잠식되고 식량 부족사태는 더욱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에탄올은 포기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동차 때문입니다. 소비자 개인의 애착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40%가 자동차 덕분에 먹고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석 연료의 시대가 끝난다고 해서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온 것. 이런 것들은 아무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고통스러울 지도 모릅니다.

제3섹터와 한살림의 역할

요즘 한살림이 초창기보다 정신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래도 같은 일을 오래하다

보면 감동은 약해지거든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상황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유전자식품도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로 더 가열차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대중들은 GMO라고 하나까 헛갈리겠죠. 이것은 완전히 생명공학 회사가 세계를 지배하려는 전략입니다. 녹색혁명도 그랬지요. 제가 ‘파괴의 씨앗’이라는 책을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명공학 회사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녹색혁명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필리핀에 미작연구소를 만들어 벼 품종을 개량한 목적이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품종, 그 대신 재래종보다 좀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결국 녹색혁명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녹색혁명이 끝나고 나니 그 연장선상에서 GMO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는 이것 막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막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소시에이션. 시민들의 연합체. 비영리 시민운동 조직을 포함하여 협동조합, 모두 제 3섹터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난 뒤 제3의 활로를 모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국가권력을 장악해서 혁명적으로 사회를 일시에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산업화 이전의 촌락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결국 도시, 농촌을 비롯한 생산자 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한살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자치생활 상부상조 조직들이 무수히 생겨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문제와 생태 문제가 풀립니다. 종래의 민주주의 체제로는 아무 것도 풀 수 없습니다. 요즘 몇몇 정치학자들이 촛불집회를 그만두고 정상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해야 부자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의제는 기득권층의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정치체제라는 것이지요. 선거로는 진정한 대표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심상정씨를 만났는데 그분이 지역에 들어가서 살아보겠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더 잘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밑바닥에서 정치가가 되는 것이지요. 일단 지역으로 가야합니다. 구체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서울에 여의도에 있어봐야 공허한 소리들만 합니다. 원래 민주주의들은 다 아마추어들이 하는 겁니다. 독일의 녹색당도 원래 그런 정신으로 진행했지요. 임기가 4년이라도 1년만 하고 돌아가면서 했잖습니까. 밑바닥에 가야 그 사람들의 간절한 욕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우리가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무수한 자치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꼭 한 군데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한살림을 하면서 대안학교를 하는 팀과 같이 동시에 일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세상이 변화하겠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주변의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맑스 해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맑스가 자본론에서는 생산력을 강조하고 높은 생산력을 전제해야 사회주의가 된다고 했지만 초창기 맑스의 철학은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사느냐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사람이 풍요롭게 산다는 것은 물건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인간관계에서 산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맑스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9세기에 국민국가가 세계 전체에 걸쳐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21세기에는 19세기에 국민국가가 하던 역할을 어소시에이션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민 자치조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야기 하지만 학연, 혈연에 의지하는 공동체는 안 됩니다. 그런 공동체로는 되돌아갈 수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아마 여성들이 혈연 공동체를 가장 반대할 겁니다. 여성들은 관계를 중요시하잖아요. 앞으로 세상은 관계를 중시하는 생활패턴, 철학, 정치체제로 가야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힘이 중요했고, 힘이 정의였지요. 국가를 통해 살길을 모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 체제로는 독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국가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한국사람 개인과 일본 사람 개인이 투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가장 사악한 요물이 국가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국가의 욕망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매우 남성적인 것이지요. 우리는 국가를 극복하는 삶의 양식을 창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투쟁으로는 안됩니다. 소련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고민을 했지만 결국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까? 국가에는 양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어소시에이션에서 물건을 두고 문제가 생기면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영토를 일부라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영토뿐입니까? 무력으로 상대를 위협으로 하는 게 국가의 본질입니다. 국가의 본질은 폭력입니다. 그런데 폭력을 통해 어떻게 미래를 개척하겠습니까?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있지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민들끼리 연합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한살림도 일본의 한살림과 비슷한 단체와 교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농촌 총각한테 시집온 사람들이 20만 명이라구요. 농촌이 먼저 국제화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농촌이 훨씬 더 빨리 나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농촌 사회가 민족적 인종적 한계를 더 빨리 벗어날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간 우리가 모여서 우리 나름대로의 생활 자치 조직을 활발하게 꾸려나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부들의 제일 고민이 뭡니까? 아이들 교육 문제죠. 공교육 체제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자치학교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학교라고 해서 모두 이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들이 모여서 자식들 교육을 독자적으로 시켜보겠다는 것이 얼마나 품위 있는 행동입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또 하나 요긴한 것이 의료입니다. 노인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돌보는 것, 우리는 살다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

니다. 잠시 동안 혼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죠. 인생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국가나 시장의 논리에 맡겨놓고 산다면 우리는 항상 돈 벌고 짜증내고 희망도 없이 살아야 합니다. 의사를 꼭 포섭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촛불집회를 보면 집단지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도 아고라에 들어가서 보는데 처음에는 형편없는 이야기들이 토론을 거치면서 아주 훌륭한 의견이 되어가잖아요? 우리가 인간에게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고라에서 명박산성을 놓고 7시간을 논쟁을 했는데, 촛불집회가 진화하는 과정이 놀라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기에 이상해도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합리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촛불 시위처럼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원래 인간에 비관적이었는데 요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권위주의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으면 결국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뛰어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견딜만한 의견이죠.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소규모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연 상태에 내버려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로 간다는 것은 부자들의 철학입니다. 그것은 서양의 국가관일 뿐이죠. 시베리아 오지에 수천년 동안 그대로 살고 있는 공동체가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는 것이 상부상조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레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양반들이 모든 것을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배는 한정되어 있지요. 백성들이 자치를 한 것입니다. 촌사람들의 자치조직이 상부상조한 것이 두레의 원형입니다. 저는 산업사회에도 그러한 두레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세계 모든 촌락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촌락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모럴 이코노미입니다. 도덕경제 즉 경제적인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하면 도와주고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갖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에도 다 있습니다. 강부자에 대한 반발 역시 모랄 이코노미의 감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돈을 훔쳐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랄 이코노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인간다운 위엄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는 결코 시장의 논리, 국가의 시스템 속에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한살림이 앞으로 여러 가지로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궁리도 많이 하구요. 중지를 모으면 좋은 착상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 되면 아이들에게 주니어 한살림을 만들게 할 수도 있죠. 가끔 교사들이 저에게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키면 좋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아예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환경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생의 의욕이 없어집니다(웃음). 그런데 요즘에는 애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자연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생산지에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체험인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위대한 작가들은 땅의 사람들의 존귀

함을 깨닫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대한 작가인 것입니다. 한살림에서는 농협에서 돈 안 빌릴 수 있게 하는 운동해야 합니다. 도농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순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공계순환제유정(空界循環濟有情). 이 세상은 순환하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